

“내餘生 마지막 일은 남북글자판 통일”

한글문화원장 · 前공안과원장

공 병 우 박사

대담/박택규<건국대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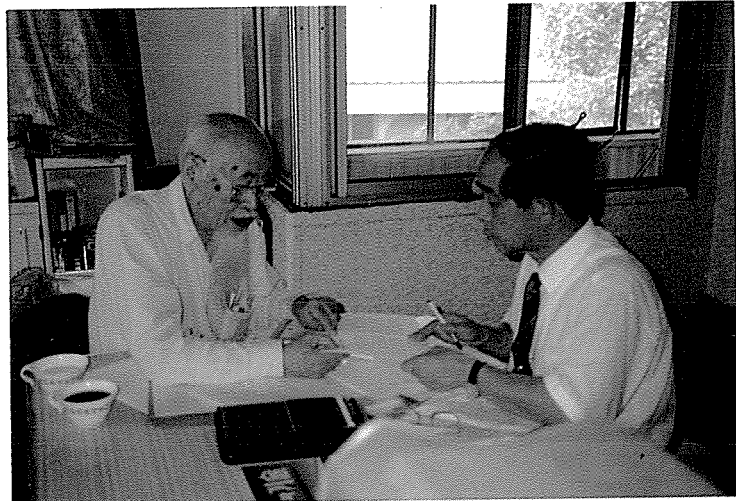
80평생을 내 식대로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서전 제목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처럼 별난 인생을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집쟁이 안과의사, 한글기계화운동의 선구자, 세벌식타자기의 발명가, 그뿐 아니라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18권의 사진집을 출간하기도 했지요. 우선 의사가 되신 이야기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나는 1906년 12월30일(음) 평북 벽농군 성남면 남상동 388번지 큰 기와집에서 태어났어요. 북쪽으로 16km를 더 가면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이 흐르는 북녘 구석진 산골이었지요. 8남매 중 장남으로 엄친(공정규)께서는 열심히 상업에 종사하셔서 곡물상인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졸업장 받은적 없어

6년제 보통학교를 5년에 마치고 3년제 의주농업학교에 무시험으로 입학하여 2년만에 수료하는 등, 졸업장 한장 받아본 일이 없어요. 1926년에 평양의학강습소(평양의전 전신)에 입학, 1년간 강습을 받은 후 서울에 와서 의사 검정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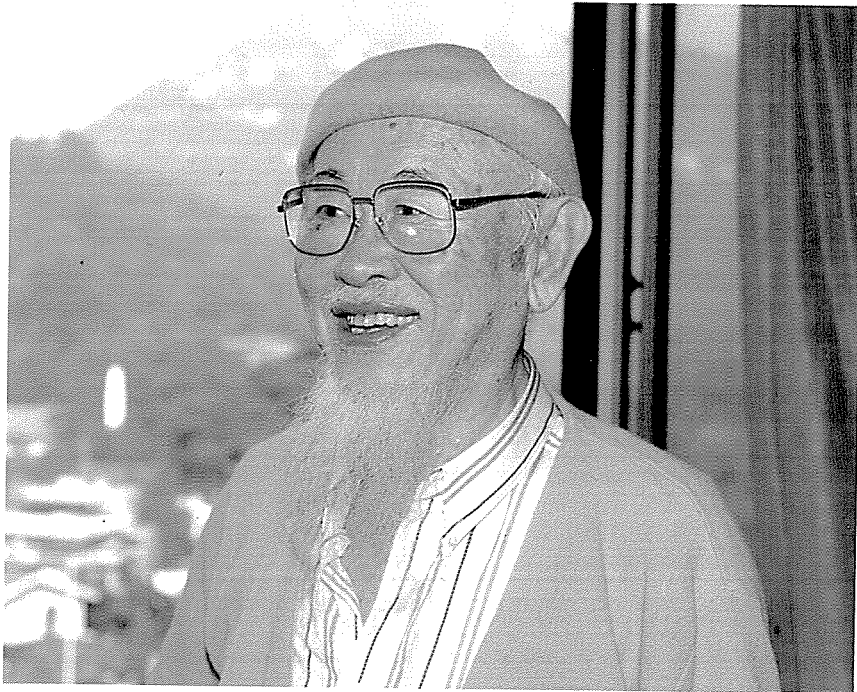


◇ 고집쟁이 안과의사로 유명한 평양의학박사가 본지 박택규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에 응시, 1부에 합격하고 또 1년만에 2부 합격, 반년만에 3부에 합격했으니 의과대학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2년 반만에 의사가 됐습니다. 바로 신의주도립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집안어른들은 의사가 된 자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요. 당시 일본의사인 노구찌 히데오의 전기를 읽고는 나도 세계적인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들을 겨우 설득, 상경해 동대문의 마차꾼들이 기거하는 하숙집에서 험난한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당시 세균학분야에서 유명

한 유일준박사의 경성의전 연구실 무급 조수로 근무하면서 1년간 연구했습니다. 안과세균학을 계속 연구하고 싶었고 선진국에 유학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2차대전이 일어나서 유학길도 막혀 개업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대학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게 꿈이었어요.

선생님께서서는 안과개업의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만 기초학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이 분야의 임상에서 얻은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 파악하셔서 학문적으로도 크게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과전문도서나 대학교과서



에 선생님의 학설이 인용. 소개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관해 말씀해주시지요.

일본인들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에서 안질이 유행하여 이 유행성안질에 대해 발표했더니 일본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안질이 학계에 보고되었지요. 전쟁중 안과전문잡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개업하면서도 꾸준히 연구를 거듭하였지요. 일본에서 발간된 안과전문서적, 교과서 등에 내 학설과 이론이 소개되었는데 1938년에 발간된 기초안과학(基礎眼科學. 馬詰嘉吉 지음 東京南山堂書店) 교과서에 내 학설이 인용된 것을 비롯하여 1960년에 출판된 일본안과전서(日本眼科全書 全15卷) 누기질환(淚器疾患, 弓削經一 지음, 金原出版)에는 찾아보기 여섯군데에 내 이름이 있으며 연구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그밖에 39년에 나의 저서 신소안과학(新小眼科學, 유한양행학술부)도 발간되었어요. 특히 유일한박사의 주문으로 만든 시력표가 조선전국, 만주에까지 널리 보급되었지요.

20세에 의사시험 합격

선생님은 스무살에 의사시험에 합격하시고 장안에서 유명한 안과병원을 개업하셨습니다. 개업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1928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세균학교실에서 세균학을 공부한 후 30년에 경성의 전 부속병원 안과에 근무했으며 34년에는 경성대학 병리학교실에서 안과병리학을 연구했지요.

그리고 36년초 일본도쿄에서 열린 안과학회학술대회에서 「중심성 맥락망막염」의 원인규명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38년에 일본 나고야제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38년에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공안과의원」을 개설하고 환자진료와 임상보고 및 저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지요. 일반환자 진료, 특히 백내장수술, 시각장애자들의 개안수술에 진력했습니다.

지방에서 맹인치료를 못하면 우리 병원에 오는데 내가 치료를 못해주는 경우 실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53년에 미국에 가보니 맹인들에 대한 대우와 맹인재활교육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년에 서울강동구성내동에 「맹인부흥원」을 설립하고 맹인점자교육과 한글타자교육을 시작하다가 71년에 건물을 신축, 설비와 직원을 보충해서 「한국맹인재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실명자 재활교육으로 점자, 타자, 보행훈련교사 등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사비로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맹인부흥원」 시절에 타자, 점자를 배웠던 사람에게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우박사. 전재경박사의 성공사례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으로 삼고 있지요.

선생님, 생애의 그 많은 에피소드중에서 일제때 창씨개명을 피하기 위해 「본인 사망」이라는 전보를 고향으로 보낸 일화에 대해서 들려주시지요.

창씨개명에 사망전보

지금도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씨개명을 피할 수 있는 묘책은 그것밖에 없었던 절박감도 있었지만, 환자도 많아서 병원일이 매우 바빴던 시절. 총독부로부터 창씨개명하라는 엄명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고향에서 부모님이 창씨개명을 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공병우」 사망이라는 전보를 띄웠지요. 큰 불효인 줄 알면서도 이런 전보를 보낸 덕(?)에 호적에서 일본식 이름을 뺄 수 있었고 서린동병원도 「공안과」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키면서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글사랑이 나라사랑이라는 일념으로 한글의 우수성·과학성을 강조 하시면서 한글 기계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세벌식자판과 공속도타자기의 발명, 그리고 공병우식 삶으로 일관해서 숭한 화제를 뿌려오신 별난 천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글타자기 발명의 계기를 말씀해주시지요.

1949년에 세벌식타자기를 완성했는데 영문타자기보다 빠르다는 (30%) 뜻에서 「공속도타자기」라고 이름 붙였지요. 38년 어느날 병원에 허름한 양복차림의 중년 신사 한분이 안질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조선민족이 갖고 있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나는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언문이라고 무시하는 한글은 보기 드문 훌륭한 글인데 일본인들이 못쓰도록 탄압하고 있어요. 제나라 글을 무시하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합니다』라고 강조하던 이분이 바로 조선어학회의 중진이며 한글학자인 이극로 선생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해방 후 조선어학회에서 일하시던 권승욱선생을 집으로 모시고 한글맞춤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비로소 깨달아 의사의 본 직업을 버리고 한글보급을 위한 한글기계화, 전산화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민족이 가진 보배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보배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어요. 과학성을 기준으로 삼아 문자를 평한다면 한글이 100%, 일본어의 카나는 50%, 로마자 67.3%, 한문 33.3%이지요. 그래서 한글은 금, 로마자는 은, 일본어 카나는 구리, 한문은 떡쇠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입니다. 한글의 구성원리대로 표준자판

은 초성, 중성, 종성의 세벌식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한글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적인 글인데도 발전을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이러한 한글의 구성원리를 무시하고 두벌식이나 네벌식을 택한 데 있어요. 한글글자판을 통일하고 남북글자판을 통일하는 것이 남은 여생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사진작가로서도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 72세에 사진에 재미를 붙이고 강원도 산골에서 제주도까지 전국도를 순례하였지요. 병원을 아들에게 맡기고 사진촬영에 몰두하여 우리 농어촌의 모습과 표정속에서 우리 겨레의 삶의 진솔한 모습과 정서를 그리고 곳곳의 절경을 탐색 촬영하면서 아름다운 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 시간을 아끼는 삶속에서 5년간에 걸쳐 18권의 사진집을 출판할 수 있었지요. 소중하게 간직했던 슬라이드 작품 1만5백여점을 비롯하여 사진집, 장비 등을 국내 최초로 사진학과가 개설된 백제예술전문대학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선생님, 오래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한국의 대표적 고집쟁이 10명을 뽑았는데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뽑혔다면요. 선생님의 인생관을 말씀해주시지요.

10명의 대표적 고집쟁이 중에 내가 6위에 들었어요. 1위가 이승만초대대통령, 3위가 최현배선생 그리고 6위에 내가 섰되었으니 살아있는 내가 단연 우리나라 최고의 고집쟁이라 할 수 있지요.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나 할런지, 이 세상에서는 앞날을 점칠 수 없는 세가지가 있는데 젊은 과부와 가을 하늘, 그리고 늙은이를 꼽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 또 하루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이 되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서 잠자리에 들곤 하지요.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12년간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하루 4~5차례 이를 닦아서 치아가 튼튼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장기·시체제공 유서

특히 일에 열중하고 가능한 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름대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죽게 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식이나 추도식도 하지말라고 이미 유서를 써 놓았어요.

첫째 장기를 다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시체도 병리학이나 해부학 교실에 제공할 것, 둘째로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24시간이내 화장, 또는 수장할 것, 여행중 바다나 강에서 익사했을 때는 시체를 찾지말 것. 셋째 죽은지 1개월 후에 친척, 친지들에게 사망 사실을 점차 알릴 것. 넷째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체장애자들 특히 맹인들의 복지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가족과 내가 법적으로 지명한 집행인과 협의할 것 등이 유서의 내용이랍니다. 이 유서도 80이 되어서야 마련했으니 인생의 의미를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깨달은 셈이지요.

그 흔한 졸업장 한장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역정은 그야말로 한국현대사를 압축한 한쪽의 그림같기도 합니다. 흰 수염이 펴 인상적인 단아하신 선생님 모습속에서 가난한 동포를 치료하시고 한글보급, 한글기계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애국애족의 그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건강속에 계속 보람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